



“꿈이 자라 60년 - 빛이 되어 100년!”

회의록



결	부의장	의장
재		

회의명	제1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일시	2024.03.28.(목). 18:00	장소	도익서홀(M402)
안건	1. 학칙 개정(안) 2. 학칙 개정(안) 3. 대학원 학칙 개정(안) 4. 기타		
참석의원	김태순 의장, 김영준 부의장, 강선주 평의원, 이승환 평의원, 이은정 평의원, 김영림 평의원, 동인범 평의원, 박상호 평의원, 이성호 평의원, 공성민 평의원, 오종탁 평의원		
위임의원			
불참의원	최봉문 평의원		
간사	고광언		

회의내용

- 성원보고** : 대학평의원회 간사가 재적 평의원 12명 중 출석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 개회선언** : 김태순 의장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대학평의원회 개회를 선언하다(18:03).
- 업무보고** : 간사가 연구년을 맞은 도중만 교수 평의원의 후임으로 이승환 평의원이 위촉되었음을 보고하다.
- 안건 심의**

가. 안전번호 9-13-01 학칙 개정(안)

- 의장이 학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입안 부서인 학사지원과장에게 학칙 개정 사유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학사지원과 이상수 과장이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227호, 2024. 2. 20., 일부개정)에 따라 학생이 다양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과 허가 대상 학생의 범위를 학년 제한 없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원격수업 이수 가능 학점 상한을 폐지하며, 공학교육혁신센터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인증 종료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계약학과와 졸업 및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을 신설하는 학칙 개정(안)을 설명하다.

- 평의원들이 학사지원과장에게 세부내용에 대하여 질의 응답한 후 의장이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물으니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다.

○ 이성호 평의원, 공성민 평의원이 퇴장하다(18:35).

나. 안전번호 9-13-03 대학원 학칙 개정(안)

○ 의장이 안전 순서를 변경하여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입안 부서인 대학원 교학과에 대학원 학칙 개정 사유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대학원 교학과 박상호 계장이 대학원 석·박사 과정의 전공 신설(다문화교육, 음악) 및 명칭 변경(기독교미술→아트미디어)을 통해 대학원생의 전공 선택 기회를 부여하고, 수업 및 등록금 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대학원 학칙 개정(안)임을 설명하다.

- 대학원 음악학과 주임교수인 민경식 교수가 대학원 음악학과 박사과정에 SIG프로그램을 위한 음악전공의 신설에 대하여 설명하다.

- 평의원들이 대학원 교학과 계장 및 음악학과 주임교수에게 세부내용에 대하여 질의 응답한 후 의장이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물으니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다.

5. 정회

○ 의장이 10분간 정회를 선언하다(19:02).

○ 이은정 평의원이 퇴장하다(19:03).

6. 안전 심의

다. 안전번호 9-13-02 학칙 개정(안)

○ 의장이 속회를 선언하고, 편제 및 입학정원조정(안)을 토대로 입안한 학칙개정(안)을 상정하고 편제 및 입학정원 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학칙 개정 사유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편제 및 입학정원조정위원회 양재찬 위원장이 2023년 8월 29일 위원회에서 편제 및 입학정원 조정원칙을 세워 교무위원회에서 확정된 대로 각 학과별 미달 인원은 입학정원에서 감원하고, 22명을 미달하는 학과에 대해서는 모집정지하기로 원칙을 세웠으며, 그 원칙에 따라 미달인원, 각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감원을 요청한 인원을 각 학과 입학정원에서 감원하였으며, 감원 및 모집정지학과 인원을 포함한 인원 83명을 자율전공으로 배정하되 미술·디자인대학 및 웹툰애니메이션게임대학과 협의하여 2유형의 자율전공인 창의예술자율전공학부를 신설하여 30명을 배정하였고, 나머지 53명은 1유형으로 사범대학, 미술·디자인대학과 웹툰애니메이션게임대학을 제외한 모든 전공을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전공학부로 배정한 학칙 제3조(학생정원 등)의 별표 3을 개정하고자 학칙 개정(안)을 입안하였음을 보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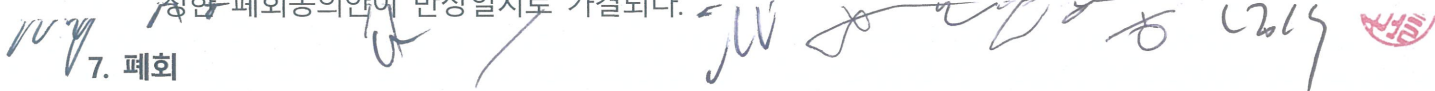
- 이승환 평의원이 53명이나 되는 자율전공학부를 신설하면서 시설 공간확보계획이나 쓸림현상을 방지할 만한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다.

- 편제 및 입학정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우선 자율전공을 신설하는 학칙 개정안이 확정되면 후속 작업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공간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









에서 쏠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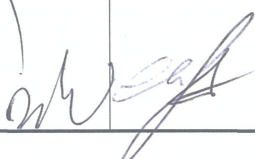

- 강선주 평의원이 주변 대학들이 자율전공으로 모집하는 경우 인원이 소수에 불과한데 우리대학이 한꺼번에 53명의 자율전공학부를 만드는 것은 너무 실험적인 것이 아닌가? 차라리 중국 문화·비즈니스학과가 제안한 대로 20여명의 아시아문화학과 신설에 대하여 중국문화·비즈니스학과가 모집정지로 단절되지 않고 아시아문화학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자율전공을 30여명으로 줄이는 것이 우리대학의 생존을 위하여 더 나은 방안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다.
- 이승환 평의원이 자율전공학부에 대한 운영주체는 누구이며, 운영계획과 교과목 개설 등 교과과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하다.
- 기획과장이 미래전략본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자율전공 학생들은 1학년 동안에는 학생들이 각 전공을 경험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전공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교과과정을 준비해야 하지만, 2학년부서는 학생이 선택한 전공학과에서 전공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며, 자기주도자율전공의 경우에도 1학년 시기에 자기주도전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고 우리대학과 배재대학에 개설된 과목 중에서 자율전공으로 선택하여 각 학과에서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자기주도자율전공의 경우에도 별도의 교과목 개설이 필요하지 않음을 설명하다.
- 위원장이 이 안건은 이미 제12차 대학평의원회에서도 검토한 사안이고 지금까지 긴 시간 논의를 하였으니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가부간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의 의사결정은 거수로 표결하였으나 이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진행할 것임을 표명하고, 간사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할 것을 명하여 간사가 투표용지를 배부하다.

- 강선주 평의원, 이승환 평의원이 표결에 불참할 것임을 선언하고 퇴장하다(20:02).
- 김영준 부의장이 교수 평의원이 퇴장한 상황에서 재적 평의원 12명 중 6명이 남아서 투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니 의사결정은 다음으로 미루고 폐회하자고 동의하고 동인범 평의원이 재청함 폐회동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7. 폐회 

-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20:19).

위원	의장 김 태 순	부의장 김 영 준	평의원 강 선 주	평의원 공 성 민	평의원 김 영 림	평의원 동 인 범	평의원 박 상 호	평의원 오 종 탁
서명								

위원	평의원 이 성 호	평의원 이 승 환	평의원 이 은 정	평의원 최 봉 문
서명				불참